

제 8 장: 금식과 절기,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 (속 7:1-8:23) (Fasting, Feasting, and God's Zeal)

I. 도입

- A. 스가랴 7-8 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시인 예루살렘과 그 백성을 위한 그분의 열심과 대면하도록, 그리고 모든 열방으로부터 경배 받으실 그의 아들의 탁월함과 그 영광을 대면하도록 초청하고 있다 (8:20-23; 14:16-18). 우리가 이것이 역사의 궁극적 목적이며 방향인 것을 알게 될 때, 지금 이에 대해 전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B. 스가랴 7-8 장을 포함한 스가랴서 전체는 예루살렘에 대한 책이며,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영적으로 분리되어서 사는 것이 아닌, 우리를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충만해지도록 추구하는 삶으로 초청하고 있다.
- C. 스가랴 7-8 장의 주요 주제는 스가랴 1-6 장의 은혜의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스가랴 1-2 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열심과 긍휼은 스가랴 3-4 장에 이르러 최고조에 다다른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완전하게 정결케 하시고, 그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초자연적인 재원을 주심으로, 그들의 대적을 제거하시며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부흥으로 이끌 것을 약속하신다 (속 5-6 장).
- D. 스가랴서의 이전의 장들이 그랬듯이 (스가랴 1-2 장, 3-4 장과 5-6 장), 스가랴 7-8 장은 특별한 방법으로 함께 연결되어 있다. 다시 말해 스가랴 7-8 장은, 스가랴 3-4 장에 묘사된 것처럼 그들을 값없이 충만하게 정결케 하시고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알려준다. 이는 그들이 스가랴 1-2 장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충만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며, 스가랴 5-6 장에 보이는 것처럼 그들의 대적을 최종적으로 제거해버리기 위함이다. 이로 인해 모든 열방이 예수님을 경배하게 된다 (8:20-23).
- E. 주께서는 스가랴에게 그분의 백성과 목적을 향한 주님의 열심과 불타는 갈망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다. 스가랴는 백성들의 마음에 동기를 부여해야 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계시와 (8:2), 그들이 순종할 때 주시기로 약속된 온전한 회복과 (8:3-23), 그리고 만일 그들이 주님을 거절할 경우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7:12-14)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었다.
- F. 주님은 우리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열심을 알기 원하시며,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열심에 반응하기를 원하신다 (마 22:37). 그분의 마음과 축복에 대한 계시로 인해, 우리는 주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게 된다.
- G. 18 년 전,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것에서 돌아와서 국가적인 약속, 특별히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고 경험하는 장소로 정하신 성전, 기도의 집을 짓는 것과 관련된 약속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들은 2 년도 못되어 낙심하여 중단했고, 16 년 동안 기도의 집 짓는 것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 오랜 시간 지연이 있는 후에, 주님은 두 선지자인 학개와 스가랴를 세워 그들로 다시 하나님과 그의 목적에 열심으로 헌신하도록 마음을 움직이셨다.

제 8 장: 금식과 절기,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 (스 7:1-8:23)

- H. 이스라엘은 회개하였고 BC 520 년 9 월 2 일에 성전을 짓는 일에 다시 헌신했다 (학 1:14-15). 그해 11 월 즈음에 그들은 벌써 그만두려고 했고 스가랴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다 (1:3). 그들은 이에 즉시 반응했다 (1:6). 그리고 3 개월 후에(BC 519 년 2 월 15 일), 스가랴는 하룻밤 사이에 8 개의 환상을 받는다 (1:7-6:8). 2 년여가 지난 후 (BC 518 년 12 월), 스가랴는 세 번째 메시지를 전했다 (스 7-8 장). 이때가 성전이 완공되기 16 개월 전이었다 (BC 516 년 3 월).
- I. 그들은 거의 4 년의 기간이 다 되어가는 때에 성전을 재건했고, 동물 제사를 바치게 되었고, 성전의 성소를 유지하는 데에 필수인 노래하는 자들과 악기 연주자들을 세웠다.

II. 스가랴 7-8 장의 내용

- A. 스가랴의 셋째 메시지의 배경은 (스 7-8) 베냐민에서 두 사람이 방문한 것이었다. 그들은 금식의 필요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파괴와 바벨론 포로(BC 586 년)의 비극으로 인해 시작된 금식 절기들을 계속 지켜야 하는지를 질문했다. 그들의 의견은 이 절기들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것이 아니며,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기에 금식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 B. 성전이 거의 완공되어 가고 새로운 축복의 때로 접어들면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부족하던 것에 대해 애통하던 것을 멈추고, 이제 그들이 얻게 된 것으로 인해 그저 기뻐해야 할 때라고 느꼈다. 이는 온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질문 중 하나였다 (7:3). 오늘날 교회의 많은 이들은 이와 동일한 것을 질문하고 있다.
- C. 하나님의 대답은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이 임하니라**”로 표시된 네 개의 메시지로 임했다 (7:4, 8; 8:1, 18). 그분의 완전한 대답은 네 개의 촉구들을 모두 합할 때에 알 수 있게 된다 (스 7-8 장).
1. 처음 두 개의 메시지는 **부정적인** 것으로서, 경고와 함께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 (스 7 장).
 2. 나머지 두 개의 메시지는 **긍정적인** 것으로서 (스 8 장), 그들에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거주하실 때 금식이 축제의 절기로 바뀔 것에 대한 영광스런 약속을 하고 있다.
- D. 주님은 그들의 질문에 절대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으셨으며, 그들이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기보다 단지 그들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금식해왔던 것에 대해 알려주신 후 (7:5), 그들이 결정하도록 하셨다. 주님은 그들의 선조들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고 오직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을 경고하셨다 (7:7-14). 그들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고, 그들이 기대했던 방식으로 축복이 오지 않았을 때에 실족했다. 주님은 그들이 금식들로 인해 마음이 어려운지를 묻고 계시며, 자신의 선조들과 같이 그들이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계신다.
- E. 이 메시지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부르심이며 (7:4-10), 이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8:1-2)과 그분이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 헌신되어 계신 것(8:3-23)에 반응하며 나아올 것을 초청하시는 것이다. 물론 이에는 반역에 따른 심판의 경고들도 있다 (7:11-14). 이 메시지는 스가랴가 첫 번째 메시지에서도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고 (1:3), 이에 대해 하나님의 열심과 축복, 심판에 대한 경고들(1:4-21)이 나타난 것과 유사하다.

제 8 장: 금식과 절기,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 (속 7:1-8:23)

- F. 스가랴는 금식의 핵심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 애통해하는 것이며, 이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큰 분량으로 예루살렘과 (그들을 통해) 열방에 부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G. 주님은 금식에 대한 그들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으나, 금식과 같은 행위들은 오직 순종의 영으로 행할 때 능력이 있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질문을 하며 그들에게 응답하셨다. 만일 금식하는 자가 주님을 알기를 원하며, 사랑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진실한 열망이 없다면 이는 헛된 것이다. 스가랴 7-8 장은 기도 운동에 대한 약속들을 강조하며, 주님을 향한 급진적인 헌신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동반되는 금식의 은혜를 회복하고 계신다.

III. 이스라엘의 4 번의 국가적 금식 (8:19)

- A. 포로기 유대인들에게는 BC 586 년에 있었던 예루살렘과 성전 파괴와 (왕하 25 장) 관련된 네 가지 비극적인 사건들을 기억하기 위해 4 개의 금식이 (8:19) 지정되었다. 모세의 율법에는 요구하는 금식은 속죄일에 행하는 단 하나뿐이었다 (레 16:29; 23:27-32). 다른 4 개의 연간 금식 절기는 바벨론 포로의 비극적 상황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생겨난 것이었다. 율법주의 유대인들은 BC 5 세기 이래로 줄곧 이 4 가지의 금식을 지켜오고 있으며, 특별히 AD 70 년의 성전파괴 이후 더욱 지켜오고 있다; 대부분의 비 정통파 유대인들도 아빕월 9 일에 대해 알고 있다.
- B. **넷째 달의 금식:** 예루살렘의 성벽들은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 넷째 달 아홉 번째 날에 붕괴되었다 (탈무드; 왕하 25:3-4; 렘 39:2). 이 금식은 17 일에 지켜지고 있다.
- C. **다섯째 달의 금식:** 이때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불탔다 (왕하 25:8-9). 이스라엘에게 가장 비극적인 날은 성전이 파괴된 날이다. 탈무드에 의하면, 솔로몬 성전은 BC 586 년 다섯 번째 아빕월 (8 월)의 9 일에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었으며, 헤롯 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AD 70 년의 동일한 날에 로마에 의해 파괴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 D. **일곱째 달의 금식:** 이 금식은 그달리야의 암살을 후세에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왕하 25:25; 렘 41:2). 느부갓네살은 그달리야를 유다의 총독으로 세웠다 (왕하 25:22-25). 그달리야는 그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예레미야를 존중했고 돌봤다 (렘 39:11-14; 40:5). 그는 단지 두 달 동안만 유다를 다스렸고 이스마엘이 이끄는 유대인 열심당원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 E. **열째 달의 금식:** 이 금식은 예루살렘의 포위가 시작되었던 때를 기억하기 위함이다 (왕하 25:1).

IV. 베엘에서 온 대표단의 질문 (7:1-3)

- A. 베엘에서 온 사람들은 금식의 필요성을 질문하고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7:1-3). 4 개의 금식은 70 년 전(BC 586 년)에 생긴 사건들과 연관되어 지정된 것들이었다.

¹ 다리오 왕 제사년 [BC 518] 아홉째 달 곧 기슬래월 사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² 그 때에 베엘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³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오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속 7:1-3)

1. **넷째 해:** 이는 BC 518 년 12 월이다; 기슬래 월은 바벨론식 이름이다.

2. **벤엘 사람이 ... 보내어:** 벤엘에서 온 대표단이 금식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사레셀과 레겜멜렉은 바벨론식 이름들이다. 이는 이들이 바벨론 포로기 때에 태어난 자들임을 보여준다. 벤엘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0 마일(16km) 가량 떨어진 곳이다.
3. 거의 모든 영어 번역본들이 KJV 와 NKJV 에서는 생략 되어 있는 '벤엘에서' 라는 문구를 포함한다 - 벤엘의 사람이.. 보내어... (NIV); 벤엘의 도시에서...(NAS); 벤엘의 사람이... (RSV); 벤엘의 사람이... (ESV). (역자주: 한글 성경에는 잘 표현되어 있다)

V. 주님의 책망 (7:4-7)

- A.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셨고 그들의 질문에 대한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으셨다 (7:4-7).

⁵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칠십 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⁶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⁷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속 7:5-7)

1. **70 년:** 이 기간은 70 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나타낸다 (BC 606-586 년).
2. **온 땅의 백성:** 주님은 이 메시지를 벤엘에서 온 대표단에게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전하셨다; 이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가진 중요한 질문들 중에 하나였다(7:5).
3.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주님은 그들이 어려운 일들로 인한 자기 연민으로 금식을 해왔다고 대답하시며, 이는 그들이 주님의 마음과 목적에서 멀리 떨어져있기 때문이 아니었다.
4. 그들의 질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순전한 열망에 기초한 것이 아닌, 단지 금식을 피해보려는 것이었음을 주님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주님은 그들에게 누구를 위해 금식을 했는지를 물으신다. 그들은 자신의 삶과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보기 위해서 금식했는가, 아니면 자신들의 환경들이 나아지는 것을 위해 금식했는가?
5. 오늘날의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어떤 이들은 그들이 받은 은혜로 인해 **얼마나 적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를 질문한다. 다른 이들은 그들이 받은 은혜로 인해 **얼마나 더 많이**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수 있는지를 질문한다. 이 질문은 예수님과 그의 관계에 대해 매우 다른 두 가지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즉 이는 다음 두 질문의 차이점과 같다. 거저 받은 은혜로 인해 내가 예수님과 누리는 관계에 있어, 언제까지 깊이 **가야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주께 더 깊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내게 어디까지 힘을 더 주실 것인가?**
6.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내가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고 추구할 나의 필요를 **취소**시키는가, 아니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고 추구하도록 내게 **힘을 더해** 주시는가?

제 8 장: 금식과 절기,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 (스 7:1-8:23)

7.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본적인 전제는 우리의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기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의미는 우리의 온 힘으로 그분을 구하고 섬기는 것이다.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확신할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께 더 드리기를 계속해서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사 우리의 “온” 힘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게 한다; 이것이 그분의 존귀하심에 대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합당한 반응이다 (계 5:9-12).
8. 오늘날의 핵심 주제는 은혜의 본질이며, 그리고 이것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며, 우리 안에서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가이다. 이는 주님이 주시는 ‘섬’의 본질을 정의해준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서 쉬며, 그분의 뜻 바깥에 속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것을 멈출 것을 말씀하신다. 그분의 은혜로 인해, 우리는 이 두 가지로부터 섬을 누릴 수 있다 -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은 육신적인 활동을 추구하는 것에서 섬을 누리게 된다.
9. **먹고 마실 때에:** 그들은 금식과 절기에 모두 자신들에게만 초점을 맞췄으며, 주님과 관계나 그들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애통함으로 금식하는 때이든, 축제의 절기의 때이든 핵심은 동일하다.
- a. 그들의 국가적 절기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하며 기억하는 때였다. 그들의 거룩한 날들(holy days)은 공휴일(holidays)이 되어버렸으며,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다시 헌신하는 때로 삼기보다 음식과 오락을 즐겼다.
- b. 금식과 절기 모두,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갈망하는 동일한 가치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금식은 그들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축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으며, 절기는 좀 더 즐기 위해 따로 시간을 떼어두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절기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날로 삼기보다, 그분과의 관계를 잠시 쉬는 시간으로 받아들였다.
10.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나** (한글 KJV: 그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였던 것이 아니냐?): 그들은 번영의 시기에 예루살렘에 주어진 선지자들의 말들을 청중했어야 했다. 그들의 조상은 번영하는 때가 그들이 주께 전심으로 나아가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주어졌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선지자들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경고했던 동일한 실수를 그대로 이어나가고 있었다.

VI. 회개의 명령 (7:8-14)

- A. 스가랴는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요약했는데, 이는 정의와 자비와 긍휼을 행하며, 이스라엘이 절대로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지 않고 악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 주님은 순종에 근간한 금식, 그리고 이로 인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결과를 낳는 금식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그는 여기서 돌파를 위해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것에 동의하는 삶을 설명하고 있다.

⁹ 만군의 여호와와 내가 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¹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스 7:9-10)

- B. 그들의 조상은 순종을 등한시했으며,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7:11-14). 주께서 부르실 때 그들이 듣기를 거절했기에, 그분은 그들이 부를 때 듣기를 거절하셨다 (렘 11:11).
- ¹¹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¹³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¹⁴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흠뻑하였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스 7:11-14)
1. 내가 그들을 ... 흠뻑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모든 열방 가운데 흠뻑심으로 심판을 부으셨다.
 2. 이 땅이 황폐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심판을 이 땅에 부으셔서, 이를 황폐하게 만드셨다.
- C. 하나님께서는 재난이 증가할 때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거절하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셨다. 심판은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것으로 가중되어 갔다. 20 년동안 바벨론의 압제는 점차 증가했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파괴되었다.

VII. 예루살렘에 임할 충만한 축복 (8:1-17)

- A. 스가랴는 7 장에서 시작한 메시지를 계속 이어나간다. 스가랴 8 장에서는 주님이 이스라엘의 미래의 운명과 천년 왕국에서의 회복을 그들 앞에 보이신다. 스가랴가 살던 시대의 회복은 미래에 이스라엘에게 임할 더 위대한 축복을 미리 맛보게 하는 것이었다.
- B. 스가랴 7 장의 메시지는 회개와 하나님을 찾으며 경건하게 살게 됨으로 심판을 피하라는 것이다. 스가랴 8 장의 메시지는 회개와 하나님을 찾으며 경건하게 살게 됨으로 장래의 축복을 받으라는 것이다.
- C. 스가랴 8 장에서 10 개의 독특한 주제와 함께 2 개의 주요 메시지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라는 구절로 각각 시작된다 (8:2, 3, 4, 6, 7, 9, 14, 19, 20, 23).
- D. 이스라엘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분의 약속은 그분의 열심에 대한 계시 안에 뿌리 박혀있다 (8:2). 이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낸 것들 중 하나이다. 여기서 그분의 열심에 대한 계시는 이스라엘을 충만하게 축복하시기 위해 금식과 기도의 은혜를 회복하시는 것에서 볼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감정을 보며 알게 될 때, 이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목적의 충만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금식을 할 동기를 제공해준다.

²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스 8:2)

1. 스가랴는 하나님의 열심의 특정한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보내졌다 (스 1:14). 이제 2 년이 지난 후인 시간에, 그는 스가랴 8:2 절에서 이를 다시 한번 반복함으로 강조하고 있다.
¹⁴ ...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스 1:14)
2.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계신다. 따라서, 우리는 이 도시를 향한 그분의 목적에 우리의 마음을 연결해야 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예루살렘의 배역으로 인해 우셨다 (마 23:37). 에스겔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죄로 인해 애통하는 중보자들을 남겨 두셨다 (겔 9:4-6). 주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자들의 형통을 약속하신다.

⁶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시 122:6)

3.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위로하고 회복하심으로, 경건한 자들을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신다. 그분은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에 대해 마음을 닫거나, 비판적이거나, 또는 시기하지 말고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할 것을 권고하신다 (사 66:10).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고 이것에 마음을 두는 것은 이 도시의 축복에 참여하기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다 (사 66:11).

¹⁰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¹¹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네히 뺀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사 66:10-11)

4. 하나님의 열심이 밝히 드러나는 것은 스가랴의 핵심 메시지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목적을 향해 불타는 갈망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 안에 드러나서, 그분은 사랑이 넘치는 신랑이며, 능력의 왕, 그리고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시는 정의로운 심판주의 모습으로 드러나신다.
5.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메시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그들에게 반드시 회개하고 열심을 내야 함을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스가랴 8:2 절에서 선포된 그분의 사랑과 열심, 그리고 회개를 가리키고 계신다.

¹⁹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계 3:19)

- E. 스가랴가 일찌기 예언하였듯이 (1:16; 2:10) 주님은 예루살렘에 거하게 될 것이다 (8:3).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큰 임금 성이라고 언급하셨다 (마 5:35). 열방은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읍이라고 부를 것이며, 성전이 있는 산은 거룩한 산으로 불릴 것이다. 예수님의 보좌가 이곳에 있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천년 왕국 동안 예루살렘은 이 땅의 하나님의 일하심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사 2:2-4).

³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와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슌 8:3)

- F. 예루살렘은 어떤 두려움이나 범죄나, 전쟁도 없는 완벽하게 안전한 도시가 될 것이다 (8:4-5). 늙은이들은 거리에 앉을 것이고, 아이들은 두려움 없이 놀게 될 것이다. 이사야는 심지어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나무의 수한처럼” 살게 될 것을 묘사했다 (사 65:20, 22, 25).

⁴ 만군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⁵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슌 8:4-5)

- G. 스가랴 시대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축복들이 믿기에는 너무 좋은 것으로 보였다 (8:6). 아래는 사람들이 스가랴의 말을 믿기가 얼마나 어려웠을지를 나타내주는 삽입 구절의 역할을 한다.

⁶ 만군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 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너무 좋은 것이라 믿기 어려운]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와 말이니라 (슌 8:6)

제 8 장: 금식과 절기,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 (스 7:1-8:23)

- H. 주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올 것을 약속하셨다 (8:7-8). 이것은 흠어져 고통 받았던 이스라엘에게는 완전한 반전의 일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회심으로 인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적인 관계를 누리는 이들이 될 것이다. 바벨론과 앗수르에서 돌아온 유대인 포로들은 대부분 동쪽이나 남쪽에서 온 것이었다. 유대인 포로들이 서쪽으로부터 돌아온 것은 AD 70 년에 로마에 의해 이스라엘이 흠어진 이후에서야 일어난 일이다. 이것이 1948 년에 크게 가속화되었다.
- ⁷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⁸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스 8:7-8)
- I. 스가랴 8:1-8 절의 약속은 그들이 전심으로 순종하도록 동기를 부여했다 (8:9-10). “이 날에” (8:9, 15) 와 “이 남은 백성” (8:11b, 12e)의 구절은 금식에 관해 질문했던 스가랴 시대의 사람들을 말한다.
- ⁹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¹⁰ 이 날 전에는 사람도 샅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샅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 주게 하였느니라 (스 8:9-10)
1. 견고히 할지어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그들이 성전을 완공할 수 있도록 자신을 굳세게 할 것을 말한다 (학 2:4). 스가랴는 그들에게 세 번이나 손을 견고히 할 것을 말했다 (8:9, 13, 15).
 2. 지대를 쌓던: 이스라엘은 18 년 차이로 지대를 두 번 놓았다. 첫 번째는 BC 536 년이었다 (스 3:8-10). 그러나 그들은 방해로 인해 16 년 동안 성전 건축을 그만 두었다. 이 구절은 (8:8) BC 518 년에 두 번째로 지대를 쌓던 때를 말하고 있다.
 3. 샅을 얻지 못하였고: 성전 건축이 16 년 동안 멈춰있는 동안, 주께서는 기근과 함께 경제적인 재난을 보내셨다 (학 1:6-11; 2:15-19). 주님은 그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의 경제 상태와 현재를 비교해 보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주님께서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고 약속하신 새로운 시즌에 있었다 (학 2:18-19).
- ⁶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듯하지 못하며 일꾼이 샅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⁹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¹¹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가뭄)를 들게 하였느니라 (학 1:6-11)
4. 평안이 없음: 이곳은 이방인, 동료 유대인(그들의 이웃들)을 포함한 대적들로 인해 평안이 없었다 (스 4:1-5). 이웃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의해 사회적인 소요 사태도 있었다.
- J. 하나님께서는 경제와 농경을 축복하시고 기근을 멈추실 것을 약속하셨다 (8:11-12; 학 2:19). 스가랴는 자신의 세대에게 책망(7:5)과 격려(8:9-12, 14)를 함께 했다.
- ¹¹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¹²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스 8:11-12)

- K.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들이 열방의 축복이 되게 하실 것이다 (8:13, 7; 창 12:3). 천년 왕국 때에는 전 세계적으로 저주가 반전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¹³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속 8:13)
- L. 하나님의 열심은 이스라엘에게 선을 행하면서도 그들을 훈계하시겠다는 그분의 결심에서 찾을 수 있다 (8:14-15).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계획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분의 열심의 두 가지 표현을 다 아는 것은 중요하다.
¹⁴ 만군의 여호와와 내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격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¹⁵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속 8:14-15)
- M. 스가랴는 이스라엘이 자신의 세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하는 두 가지 측면, 즉 “이 날에” 선한 일을 행하기로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역할(8:14-17)과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이스라엘의 역할(8:16-17)에 대해 강조했다. 하나님의 크신 약속을 생각할 때, 이 백성들은 진리를 말하며, 공의를 행하고 그들의 공동체에 평안을 가져오는 일을 해야 했다. 이 부분은 속 7:9-10 절의 경건에 대한 권고를 반복한 것이다.
¹⁶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며 ¹⁷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속 8:16-17)
- N. 그는 돌파를 향한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삶에 대해 묘사했다. 우리는 자원들을 사용하는 것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을 향한 우리의 충성과 사랑을 표현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나간다. 주님은 우리를 순종에 기반한 금식으로 부르시는데, 이로 인해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이끈다.

VIII.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8:18-23)

- A. 주님은 금식에 대한 질문에 단지 부분적으로만 대답하셨다 (7:5). 주님이 이제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오심으로, 이것이 주께서 스가랴 7-8 장에 걸쳐 말씀해오신 주제였음을 보이신다. 이스라엘이 구원의 충만함을 경험해 나감에 따라, 과거의 금식의 날들은 미래에 절기와 축제의 날들이 될 것이다.
¹⁹ 만군의 여호와와 내가 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속 8:19)
- B.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진리와 화평은 온전히 승리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금식은 이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단지 우리의 개인적인 형편을 부요케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7:5).
- C. 하나님의 열심은 모든 열방의 경배를 받게 될 자신의 아들의 탁월함과 영광을 위한 것이다 (2:11; 8:20-23; 14:16-18).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거하시게 됨으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8:3).
²⁰ 만군의 여호와와 내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²¹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²²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속 8:20-22)

- D. 모든 이들이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14:16-18). 이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이며, 그분은 예수님께서 가장 높임을 받으시며, 열방은 그분이 그들을 사랑하는 동일한 열심으로 그분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역사 가운데 성취되어야 될 주님의 큰 그림이고 목적이다; 우리가 이를 지금 행해나가는 것은 매우 합당하다.
- ¹⁶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¹⁷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스 14:16-17)
- E. 모든 열방으로부터 온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사 66:18).
- ¹⁸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뭇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이방인]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¹⁹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뭇 나라에 전파하리라 ²⁰ 그들이 [이방인] 너희 모든 형제를 뭇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사 66:18-20)
- F. 예루살렘은 천년 왕국에서 축복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 ²... 만방이 그리로 [예루살렘] 모여들 것이라 ³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예수님]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올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사 2:2-3)
- G. 많은 이방인들이 한 유대인의 옷자락을 잡을 것인데 이는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 분명하게 그에게 있기에 그와 함께 가기를 요청하기 위해서이다. 예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너무나 현저하게 임할 것이기에 모든 열방이 주님께 나아갈 것이다.
- ²³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열 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스 8:23)